

‘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열린관광지 등 5건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등 문화 분야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제43회 차관회의에서 '2021 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8개 부처는 지난 8월 20일부터 각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에 올해 처음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꼽았다. 이를 통해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 명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 받아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확대해 총 8500여 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두 번째는 문체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4월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 사례다.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 팀을 구성하고, 현재 시장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과 관련된 국내의 27개 불법 사이트의 운영진 파악·검거 등 합동수사를 펼치는 것은 물론 한류 침해 웹툰 사이트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최초로 인터폴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한 사업이다. 세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

성하고 있는 사례다.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예술인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개선한 사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 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1인당 대체 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여행하기 어려운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동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92곳을 조성했고, 내년도도 20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읍시립중앙도서관서 다문화가정 한지공예품 전시

14일까지 7가족 만든 70여점 작품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한지로 만든 공예품 전시회가 정읍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지랑 어울림 더울림'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 다문화가정 7가족이 만든 한지공예품 총 7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정읍시 다문화작은도서관이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한지공예 과정 교육생들이 만든 작품이다. 다문화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내재령생교육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6월부터



다문화가정 한지공예품.

9월까지 한지공예 과정을 개설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가족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위주로 연필꽂이와 미니 보관함, 보석함, 팔각 과반, 한지 시계 등 다양한

종류의 한지공예품을 만들었다. 전시 작품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 이주여성들은 "한지공예에 수업을 받으면서 오색한지의 아름다움과 한국문화를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가족이 협동해 만드는 참여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낯선 이국땅에서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정의 끈끈한 가족애와 이웃들과의 연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리꾼 정보권, 동초제 춘향가 완창 무대 열린다

‘전주완창무대’ 관련 6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전주시가 주최하고 우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 전주완창무대'와 관련, 소리꾼 정보권이 오는 6일 관객들을 만난다. 4일 우진문화재단에 따르면 정보권 명창의 동초제 춘향가 완창 무대가 오는 6일 오후 2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동초제는 명창 동초 김연수가 창시한 판소리 유파이며, 동초 김연수의 호를 따 동초제라 불린다. 가사와 문학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너름새가 정교하고 부침새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동초제 춘향가는 정정렬제를 토대로 하지만, 김연수는 옛 명창들의 더듬을 살리고 신재효의 사설을 참고해 동초제 춘향가를 새로 썼다. 이는 오정숙을 거쳐 현재의 동초제로 이

어지고 있다. 정 씨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하고, 박동진 명창명고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수상했으며, 전통과 현대적인 무대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의 완창은 장장 8시간이 소요되는 무대로 김한샘·김형주·고정훈씨까지 총 3명의 고수가 출동하며, 해설에 이다연씨가 함께한다. 앞서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공모로 선정된 박봉술계 적벽가의 김도현, 동초제 흥보가의 정상희, 강산계 심청가의 지아름 등 명창 3명의 무대가 펼쳐졌다. 오는 13일 일현빈 명창의 동편제 수궁가를 끝으로 2021 전주완창 무대가 막을 내린다. /뉴시스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친환경 여행 실천 결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일부터 4일 간 도내 14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재단과 문화관광해설사회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에 대응해 7개 권역별 중규모(50명 이하) 행사로 진행, 도내 14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2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하이킹 아티스트이자 여행 작가로 활동 중인 김강은 씨를 연사로 초청, '우리의 삶을 살리는 친환경 여행문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여행에 대한 선한 영향력 확대와 직접적인 친환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식을 가졌다. 한편 재단에서는 지난 10월 친환경 여행문화 선도 등을 포함한 관광 부문 ESG 경영 실천 결의식을 진행한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처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ESG 경영 실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일부터 4일 간 도내 14개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쳤다.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4일 한국전력고창지부(지사장 기장호)와 '청소년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재능 활성화·지원 협력

고창교육지원청-한국전력고창지부, 업무협약 체결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은 4일 한국전력고창지부(지사장 기장호)와 '청소년 지원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 및 고창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등 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꿈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재정지원은 한국전력고창지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매년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모은 적립금을 지역사회

에 기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매년 40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황근 교육장은 "임직원 모두가 기부에 참여하고 적립된 기부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기관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가 발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교육지원청과 한국전력고창지부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재능과 능력 있는 청소년들의 꿈의 실현이 더욱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리산천년송 전통혼례식 성대하게 진행

형편 어려운 장애인 부부 2쌍 대상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난 3일 뱀사골 와운마을 지리산천년송(천년기념물 제424호)에서 2쌍의 전통혼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천년송 전통혼례식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부부 2쌍으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가 주관하고 남원향교와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남원시지부가 공동 진행하였으며,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와 주)코빅스, 남원시가 공동 체결한 ESG업무협약 실천에 따라 코빅스가 후원했다. 혼례식은 남원시립악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판소리와 남원시립국악원의 판소리와 함께 가마행렬, 전통방식의 혼례식 등 아름다운 풍경과 많은 탐방객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특별히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이



참석해 지리를 빛냈다. 김창순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 천년송 혼례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국립공원과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한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기념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